

지방자치·종합

대선만큼 뜨거운 동구청장 보선

길거리 유세 얼굴 알리기 주력
시장·경로당 방문 지지 호소도



광주 동구청장 보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7일 새누리당 최정원·민주통합당 노희용·무소속 양혜령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총장로에 대선시장, 금남로 등지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보선선거가 27일 본격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은 길거리 유세를 중심으로 유권자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현재 동구청장 보선선거에는 새누리당 최정원 후보와 민주통합당 노희용 후보, 무소속 양혜령 후보가 출마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각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피켓 등 다양한 도구를 동원한 후보자 홍보와 함께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며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는데 안간힘을 쏟았다. 새누리당 최정원 후보는 이날 광주 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논리가 아닌 실질 행정으로 동구를 다시 반영시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최 후보는 회견 뒤 동구 총장로와 금남로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를 통해 "호남 정치·경제 1번지 동구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며 "동구의 재정장과 도약을 위해서 수 십 년 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민주당의 울타리를 건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노희용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중앙당 주요 당직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출발을 했다.

노 후보는 이날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세균 상임고문 등과 함께 산수 오거리에서 출근 인사와 함께 집중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이날 금남로·총장로·전남대병원 앞·옛 도청 앞·계림동 홈플러스 앞 등 동구 일대에서 대선 지원 유세와 함께 동구청장 지원 유세를 벌이며 문재인 대선 후보와 노희용 동구청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특히 이날 오후 옛 도청 앞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선대위 출범식'에 맞춰 '동구 희망캠프' 출정식을 개최하며 세풀이에 박자를 가했다. 노 후보는 출정식 인사를 통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정권교체를 이루면 공사차질, 예산 지원 등 문화전당 격조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동구 부활과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통합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노 후보는 특히 이날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양 후보는 이날 연설원들의 거리 지지유세와 별도로 각 지역을 돌며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

했다. 또한, 지역별로 여론을 체크한 뒤 지지율이 낮은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선거 전략을 세워놓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양 후보는 또 무소속 후보인 만큼 노인층의 '민주당 표 풀림'을 막기 위해 경로당과 동구 자연부락 등을 방문하며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양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주관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 정당 후보자들만을 초청하고

유력 무소속 후보를 배제한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 차단"이라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정당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의 선거토론편승 규정에 따라 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비초청 대상으로 홀로 연설방송을 하게 된다"며 "무 후보는 진정 동구민을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후보 3명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되도록 무소속 후보를 토론회에 초청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자체 첫 중국연구센터 설립 이견철 전남발전연구원장

“전남 농수산·제조업 中 진출 교두보”

“이제 중국 없는 글로벌 경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남의 친한 경 농·수·축산업과 제조업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남발전연구원 내 중국연구센터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FTA·관광객 정보 연구

산업별 기초 자료 제공

국내 시·도 발전연구원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연구센터를 여는 전남발전연구원 이견철 원장은 27일 '중국과 전남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전남은 중국 시장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달 7일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전남발전연구원 내에 문을 여는 중국연구센터는 전남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한·중 FTA를 사전에 준비하고 ▲산업·경제 연구 ▲관광 교류·투자 ▲자원 공동개발 등의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연구에서 벗어나 중국과 상생할 수 있는 본격적인 '중국 연구'가 지역에서 시작돼 연구센터 개소 전부터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원장은 "중국시장은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다"면서 "중국 상류층이 안전한 음식을 찾고 있어 전남의 농수산물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전남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제대로 아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하이시와 저장성, 장시성 등 중국 내 주요 성(省)이나 시(市)와 관련된 통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지역 사회에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요구와 소비 패턴 등을 연구해 이를 토대로 관광 상품을 만드는 전략 등도 중국연구센터에서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국연구센터에는 중국 전문가와 코트라, 무역협회, 주한 중국 영사관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근무 중인 전문가들이 운영과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각 분야 국내 전문가 184명이 전문가 풀로 공동 연구작업에 나선다. 이 원장은 "중국연구센터 개소 후 중국 경제·사회 동향을 매달 발표하고, 산업별 기초 자료를 모아 업체 등에 제공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 등 기업들이 SOC 건설이 한창인 중국 내륙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영목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2019 세계수영선수권 유치안' 의결

영광원전 가동중단 결의문 채택도

광주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가 제출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1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2019년 제18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과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을 의결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선진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도시 광주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며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출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를 조간간 발족하기로 하고, 유치위원회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영광원전 가동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영광원전의 잦은 사고와 위주 부품의 사용, 핵심시설의 이상 징후 등은 그동안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온 정부와 원전 측의 주장을 이제 더는 신뢰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영광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어 ▲위주부품비리 관련자 처벌 ▲광주시와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원전 상설 민간감시기구 운영 ▲광주시민에 대한 중장기 방호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광주시, 원전 측에 촉구했다. 서구의회를 이날 '영광원전 가동 중단'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바꾼다

수익성 낮추고 공공성 배점 70%로 높여

정부가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수익성 유무에 따라 평가 배점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비)수익형 사업은 수익성 배점 비율이 현행 60~70%에서 30%로 낮아지고 공공성 비율은 30~40%에서 70%로 높아진다. 공공기관 신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분별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에타)제도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27일 밝혔다. 방안은 에타제도의 투명성, 객관성,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방안은 보면 우선 공공기관 에타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민간 위원이 다수 참여하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공공

기관 에타 자문회의'를 신설, 에타 대상 또는 면제 사업 선정과 면제 기준 변경 등을 심의한다. 에타조사의 평가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국내사업'은 공공성 40%, 수익성 60%, '국외사업'은 공공성 30%, 수익성 70% 기준이 적용돼왔다. 앞으로는 국내외 구분 없이 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 배점을 달리한다. '비수익형'은 공공성 70%, 수익성 30%, '수익형'은 공공성 30%, 수익성 7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익성 배점이 최대 40%포인트 줄어드는 비수익형 사업은 에타 조사 통과가 쉬워진다. 국민경제의 편익과 정책성을 고려한 조치다. /연합뉴스

경로당 6만여곳에 월 30만원 난방비

정부는 경로당 6만1773곳에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3742곳에도 1곳당 50여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 겨울 이른 추위와 함께 많은 눈·비가 예상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보면 우선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재난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공시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Lists court judgments for various cases.

2012년 11월 15일 판사 이동기